

전통혼례복의 문양을 응용한 웨딩드레스에 관한 연구 - 연화문, 당초문, 모란문 중심으로 -

장문희 · 홍정민[†]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학과

The study of Wedding Dress by Applying the Pattern of Traditional Wedding Dress

- Focused on Lotus Flower, Arabesque, Peony Patterns -

Moon-Hee Jang · Jung-Min Ho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08. 4. 17. 접수/2008. 5. 16. 채택)

Abstract

This research thesis is designed to put Korean traditional and unique wedding dress with a greater significance and value than any other dress into application right for the global and contemporary trend, as part of a bid to show Korean traditional beauty. To do it, this thesis has attempted to add the traditional beauty to Korean inherent wedding dress and contemporary wedding dress, with the use of various traditional beauty elements, such as the line form, materials and color based on the research on wedding dress, such as, 'Wonsam' or 'Unlined Jacket, and 'Long-sleeve Red Silk Jacket', and 'Dangeu' or 'Court Suit' that women wore in the Joseon Dynasty. To recreate Korean traditional beauty of line this research thesis has firstly put into the application the sleeve of 'Wonsam' or 'Unlined Jacket' and the form of a large section of 'Wonsam' of 'Unlined Jacket', and 'Doreyon Line' or 'Trimming Line' of 'Dangeu' or 'Court Suit' as wedding dress that women wore in the Joseon Dynasty. Secondly, this thesis has applied lotus and peony patterns out of traditional ones inlaid with 'Long-Sleeve Silk Jacket' into the contemporary wedding dress to develop a creative and special design. Thirdly, regarding the expressive pattern technique, this thesis has designed the repetitive rhythmical pattern with the use of beading technique and embroidery technique, which makes needle work picture and pattern in fabric. Lastly, it can demonstrate the original and distinct Korean style in application of western wedding dress into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dress, by devising two collections of dress art pieces.

Key words : Wedding dress(웨딩 드레스), Traditional pattern(전통 문양)

I. 서 론

문양은 의식의 반영이며 정신 활동의 소산임과 동시에 창조적 미화 활동의 결과이다. 그래서 그것을 향유하는 집단 사이에서는 그것이 이미 무엇을 대신하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약속된 부호와 같은 성

격을 띠고 있다. 한국 전통 문양은 전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소이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대에 와서는 전통문양의 주술적, 상징적 의미는 거의 사라지고 장식적인 요소만이 강조되고 있어 보는 이에게 전달되는 시각적인 효과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¹⁾

혼례의식에서 신부의상은 신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할 뿐 아니라 각 나라마다 특유하고 전

[†]Corresponding author: Jung-Min Hong
E-mail: Jmhong@cu.ac.kr

통적인 풍습과 관습, 그리고 민족의식을 잘 나타내어 주며 다른 복식보다 좀 더 가치를 두어 치장하므로 그 시대의 미의식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그러한 민족적 전통성을 대중 매체와 통신의 발달로 한 사회체제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세계 인류의 교류와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나 양식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공통화 되어가고 있어²⁾ 전통혼례보다 서양식 혼례가 거의 대부분으로 이뤄지고 서양의 드레스가 입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양을 이용하여 전통성과 현대화를 적절히 융합시켜 한국적인 이미지를 웨딩에 표현하는 것은 세계화와 자유무역개방시대의 필수적이며 우리민족의 고유성과 한국적 전통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한복이나 전통 문양에 대한 연구는 한복이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중요시되면서³⁾ 디자인 개발 차원에서 꾸준히 연구가^{4,7)} 이루어지고 있으나 웨딩드레스에 모란문과 당초문을 응용한 디자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웨딩드레스에 한복의 선과 모란문·당초문·연화문을 응용하여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킨 한국적 이미지의 웨딩을 디자인함으로써 그 가치의 국제적 보편성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우리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현대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하기 위하여 조선시대 혼례복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사용되어진 문양을 여러 문헌과 자료검색 등을 근거로 하여 파악하였고, 이를 응용하여 작품 2점을 제작하였다.

실루엣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구성하였고 소재는 공단·실크·노방을 사용하였으며, 색상은 아이보리색과 화이트가 주가 되며 표현기법은 원단에 바로 수놓는 자수기법과 비딩기법을 활용하였다.

III. 이론적 배경

1. 조선시대 여성혼례복의 종류 및 특성

1) 원삼

원삼은 조선 후기에 가장 일반적인 혼례복 중의 하

나로 초기에는 왕비의 법복 외에 노의와 장삼이 예복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차츰 노의와 장삼이 집결되어 원삼으로 되어졌고 영조 때에 와서야 제도화 되었다.⁸⁾

원삼의 종류에는 황원삼, 자적원삼, 녹원삼 등을 들 수 있으며 왕비는 상복으로 빈궁들은 소례복으로 내외명부들은 대례복으로 착용하던 것이 후기에 이르러 일반인들의 혼례복으로 허용되었다. 형태는 신분차이 없이 착용하나 색상은 구분하여 착용하였다. 황후가 착용하는 황원삼은 황색 길에 다홍색과 남색 색동과 흰 한삼이 달리고 홍색 봉황 대대에 오조룡을 금수한 원보를 양어깨와 앞뒤에 붙였다.

빈궁은 자적색 길에 황색과 홍색의 색 끝동에 한삼이 달린, 봉문 금박을 박은 자적원삼을 착용하였는데 걸감은 자적색이고 안감은 노란색이며 직금문양은 봉황문을 하였다.

공주나 왕자가 대례복으로 착용하던 녹원삼은 연두색 길에 다홍색과 노랑색 끝동과 한삼이 달리고 직금문양은 화문이다.

2) 활옷

활옷은 고려와 조선시대 때 공주·왕자의 대례복으로 입던 소매 넓은 옷으로 화려한 수를 놓아 혼례복으로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대홍색 비단에 장수와 길복을 의미하는 물결, 바위, 구봉, 연꽃, 모란꽃 등의 수와 이외에 이성지합(二性之合)·만복지원(萬福之源)·수여산(壽如山) 부여해(富如海) 등의 글을 수 놓고 수구에는 한삼을 달았다. 치마 저고리 위에 활옷을 입고 대대를 띠고 머리에는 용잠을 꿰고 뒤에 도투락 땀기와 양비녀 옆으로 앞땀기를 드러낸다. 그리고 노리개를 차기도 하였다.¹⁰⁾

활옷의 길이는 지면에서 약간 올라갈 정도이고 앞길은 뒷길보다 짧으며 옆이 트였다. 소매는 대부분 앞면 윗부분에 목단 문양이 약간 보일 정도로 수를 놓았으며 연꽃, 목단꽃, 호랑나비 문양이 사용되었고 색동부분에는 수를 놓지 않아 색동 자체색의 아름다움을 살렸다.¹¹⁾

문양의 종류와 위치를 보면 앞길은 동정 근처 좌측에 수여산, 우측에 부여해의 글자문양과 목단문을 수 놓았고, 앞길 아래에는 장수와 수복을 의미하는 물결, 바위, 불노초, 어미봉, 새끼봉, 목단화 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뒷길에는 역시 옷전체에 장수와 수복을 의미하는 물결, 바위, 불로초, 봉황새, 연꽃, 목단꽃, 구

름 등의 문양을 수놓았으며 진동선 위치의 좌측에 백복지원을 우측에 이성지합의 글자 문양을 수놓아 혼례의 뜻을 담고 있다.¹²⁾

3) 당의

당의는 소례복으로서 궁에서는 평상시에 흔히 입는 것에서 후기에 와서 일반인의 혼례복으로 허용되었다.

보통 연두 길에 형태는 저고리와 비슷하나 앞길과 뒷길이 길고 도련은 둥근 곡선을 이룬다. 옆은 진동선 아래로 트여 있어 앞길은 좌우 두 자락, 뒷길은 한 자락이다. 깃은 제 깃이고 겹고름과 안고름은 붉은 자주색이고 소매가 좁고 소매 끝에는 창호지를 받쳐서 수구에 달며 자주 갈아 달수 있다.

왕비의 경우 금박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삼회장 저고리와 남색 스란치마 위에 입으며, 서민용은 민당의라고 하여 금박을 금지하였고 곡선이 밋밋하고 색이 다소 짙으며 무늬도 조금씩 있는 소박한 모습이다. 사용된 색에 따라 연두당의·자주당의·남송(노랑)당의·백색당의로 나눌 수 있고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백색의 흘당의, 겨울에는 겹당의를 입었다.

당의는 원삼이나 활옷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조선시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였던 혼례복 중의 하나이다.

2. 연화문 · 당초문 · 모란문의 특성

1) 연화문

삼국시대부터 연꽃무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면 불교의 전래와 함께 더욱 성행하였다. 고구려 쌍영총의 천장 가운데 무늬, 백제 능산리 고분벽화의 연화문도등에서 연꽃은 천계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불상의 대좌, 광배에는 어김없이 연꽃이 새겨진다. 조선시대의 분청사기박지연화문편병, 청자진사연관문표형주자 등의 도자기에서도 볼 수 있으며, 신윤복의 그림에도 여인과 함께 그려진 연꽃이 보인다. 연 열매는 귀한 자식을 의미하고, 그것과 함께 생생한 연꽃의 자태는 연생귀자라 풀이되어 연이어 귀한 자식을 낳는다는 뜻을 지닌다. 조선시대에는 이렇듯 불교와는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연꽃 그림을 애완하여 가정에 복을 기원하였다.¹³⁾

연꽃무늬는 정면형과 측면형, 반측면형, 연봉오리

그리고 연잎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면형 연꽃은 활짝 핀 연꽃으로 증생의 성불을 의미하며 연봉오리는 성불하기 전의 청정함을 의미한다.

동양에서는 연화는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만 생각되었다. 연화문이 우리나라에서 장식무늬로 이용되기 시작한 확실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전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예는 불교관계 유적에서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연화문이 장식되기 시작한 것은 불교 전래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연화문의 형태는 위에서 본 형태와 옆에서 본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 본 형태는 4, 6엽 혹은 8엽의 화판이 모여 하나의 만개한 모양을 이룬 형태이고 화판 중앙에 자방이 표현된 형태이고 옆에서 본 형태는 연꽃의 화판만으로 이루어진 장식무늬로 소위 연관 형식이다.

연꽃이 활짝 피어있는 모양을 위에서 내려다본 형태는 대개 6엽, 8엽, 12엽, 16엽 등이 일반적이고 이외에 특수한 경우는 7엽, 11엽, 13엽 등의 변화형도 간혹 찾아 볼 수 있다.

화문 형식의 가장 일반적인 도형으로 쓰여온 정면형 문양은 각 지역과 특성과 시대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 단순한 원형을 방사선형으로 구획한 도형에서부터 화판을 좀 더 구체화시켜 사실적으로 묘사된 연꽃, 점, 방사선, 원권무늬를 장식해 도안화시킨 형태 그리고 흘꽃과 겹꽃 모양 등 다양한 묘사를 통해 각기 표현을 달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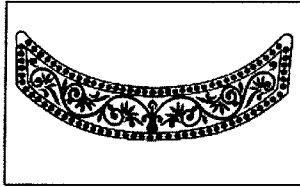
연관 양식은 화판 끝이 어느 쪽을 향했는가에 따라 화판 끝이 위로 향한 양면과 아래로 향한 복면이라고 하며 표현 형식은 연화문을 구성하는 연관 자체의 형식에 따라 단판, 복판, 중판으로 구분한다. 단판은 한 개의 꽃잎으로 된 것을 말하며, 복판은 한 개의 꽃잎인데 화판의 중앙에 종선이 있어 화판이 좌우로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각각 혀 모양의 돌기 장식이 있는 형식이며, 중판은 꽃잎이 두 겹 이상 겹쳐져 있는 형



<그림 1> 연화문단청



<그림 2> 연꽃무늬 수막새 (고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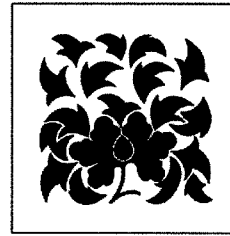
<그림 3> 인동당초문(통인신라)



<그림 4> 인동당초문



<그림 5> 모란당초무늬



<그림 6> 모란당초문(진파리1호분, 고구려)

식으로 분류된다.¹⁴⁾

연화문단청을 나타낸 <그림 1>과 <그림 2>¹⁵⁾는 고구려 시대의 연꽃무늬 수막새이다.

2) 당초문

당초문은 <그림 3>과 <그림 4>¹⁶⁾와 같이 덩굴식물로서 끊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계속 이어 때문에 장수한다(益壽)는 길상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주로 불교적인 장식문양으로 많이 쓰였다.

우리나라에서 당(唐)자를 쓸 때는 보통 중국에서 유입된 것을 의미하는데 당초라는 명칭도 이러한 중국 전래의 덩굴무늬를 통털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같은 넝쿨 무늬라도 그것이 인동과 결합하면 인동당초, 보상화와 결합되면 보상당초 등으로 부른다.

덩굴인 당초의 속성은 오래도록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쉬지 않고 살아간다(生生不息)”의 의미를 갖는다. 연꽃, 포도, 인물, 새 등과 결합되어 공범 위한 분야에 활용되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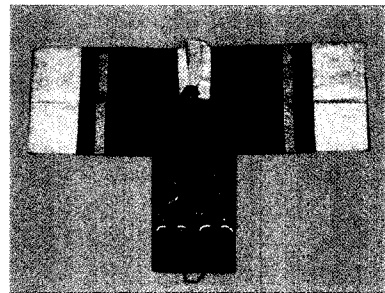
3) 모란문

꽃 중의 왕으로 부귀와 명예를 상징한다. 모란은 다른 문양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데, 모란꽃을 병에 꽂은 문양은 “富貴平安”이라는 뜻이 되며 모란과 白頭鳥 한쌍과 결합되면 “머리가 하얗게 셀 때 까지 부귀하다”는 뜻이 된다.

신부의 예복인 원삼이나 활옷에 모란꽃을 수놓았다. 또 왕비나 공주의 옷도 모란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부귀영화와 함께 천하제일의 아름다움을 상징하여 절세미인을 모란(天香國色)에 곧잘 비유하였다.

덕스럽고 복 있는 미인을 활짝 핀 모란꽃에 비겼다. 또, 선비의 청운의 꿈이 담긴 책거리에도 모란꽃을 그렸는데, 모란은 부귀와 공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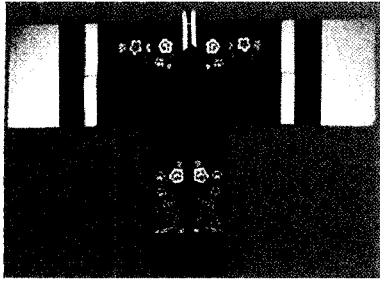
모란은 여러 그루가 함께 어우러져 피어야 더욱 아름답다. 그러한 모습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을 상징한다. 그래서 모란으로 꾸민 병풍을 모란병(牡丹屏)이라하여 혼인식 등 경사스러운 날에 썼다. 궁궐에서 애용된 석모란(石牡丹)병풍은 궁모란이라고 달리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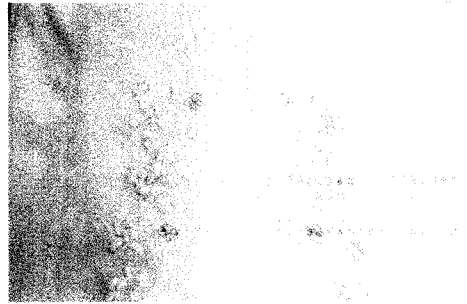
<그림 7>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품 연화문, 모란문



<그림 8>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모란당초문



<그림 9>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품 연화문



<그림 11> 작품I-세부

모란문의 모습은 기와에 나타난 <그림 5>와 <그림 6>¹⁸⁾과 같다.

<그림 7>은 연화문과 모란문이 활용된 석주선기념 박물관에 소장된 활옷이고 <그림 8>은 모란당초문이 활용되었으며 <그림 9>는 연화문이 활용된 활옷의 모습¹⁹⁾이다.

IV. 작품 제작

서구적인 웨딩드레스에 전통적 미를 살리기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조선시대 여성 혼례복을 살펴 본 후 전통 복식의 선의 형태를 응용하였고, 또 이에 활용된 전통 문양 중 꽃문양을 중심으로 연화문, 모란문, 당초문을 조사, 응용하여 드레스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은 모두 원피스 드레스로 구성하여 실물 2점을 제작하였으며, 형태는 최근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여 구성하였다. 웨딩의 경우 대개 백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채분석 및 적용은 하지 않고 흰색과 아이보리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표현기법

은 원단에 바로 수를 놓는 자수 기법과 비딩기법을 활용하였다.

1. 작품 및 해설

작품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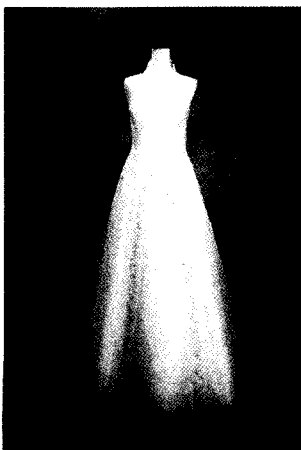
문양 : 연화문, 연화당초문

소재 : 공단, 노방, 비즈

색상 : 흰색

기법 : 자수, 비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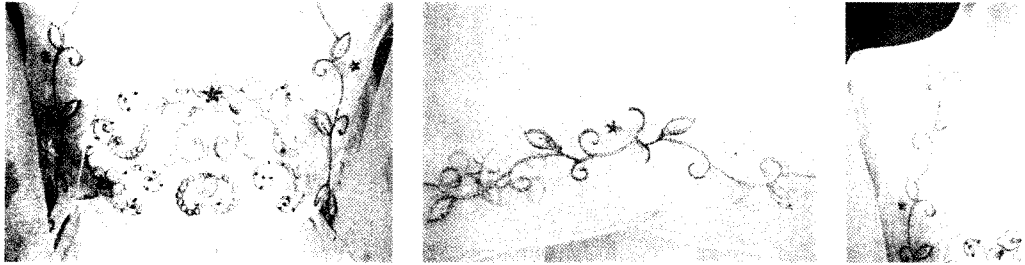
설명 : 웨딩드레스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용되는 형태인 프린세스 라인에 상의는 최근 현대 여성들에 의해 많이 선호되는 탑 형태로 디자인하여 길어 보이면서도 여성스런 면을 부각시켰다. 그 위에 활옷의 소매를 제외한 길 형태를 프린세스라인의 조끼형태로 노방을 사용하여 길게 제작하여 심플한 라인 위를 덮어주어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표현되었다.



<그림 10> 작품I-앞모습



<그림 12> 작품II-앞모습



<그림 13> 작품II-세부

문양은 연화문과 연화당초문을 사용함으로써 노방의 조끼허리 밑단에 배치하여 우아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작품II

문양 : 모란문, 모란당초문

소재 : 공단, 노방, 비즈

색상 : 흰색

기법 : 자수, 비딩

설명 : 한복의 치마형태를 드레스에 응용하였다. 상의는 최근 현대 여성들에게 많이 선호되는 탑을 넓은 띠로 만들어 자수하였고 하이웨이스트 라인으로 스커트에 풍성한 주름을 주어 귀여운 느낌을 부각시켰다.

상의 위에는 조선시대 혼례복인 원삼을 응용하여 곡선의 넓은 소매를 만들었고 당의의 도련라인을 응용하여 볼레로 형태로 표현해 화려하고 우아함이 표현된 웨딩드레스이다.

상의의 탑 부분에 모란문을, 볼레로의 소매와 앞단 부분 전체에 모란당초문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자수하였다.

여 한국적 고유성과 현대 웨딩드레스에 전통적인 미적 특징을 재창조하였다.

또한 전통문양 중 연화문, 모란문, 당초문을 개발의 소재로 선택하여 전통적 가치를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킨 한국적 이미지의 디자인인 웨딩드레스를 제작하였다.

첫째, 조선시대 혼례 때 입은 원삼의 소매와 활옷의 길 형태, 그리고 당의의 도련선을 웨딩드레스에 적용하여 우리 고유의 선의 아름다움을 재현하였다.

둘째, 활옷에서 사용되던 전통문양 중 연꽃 및 모란문을 응용하여 웨딩드레스에 재구성해 현대적인 표현 영역을 넓혀 더욱 특별함을 더하는 창조적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셋째, 문양의 표현기법은 원단에 바로 수 놓는 자수기법과 비딩기법을 활용하여 문양의 반복적 표현을 통해 율동적인 패턴으로 연출하였다.

넷째, 작품 2점을 원피스 드레스 형태로 제작하여 서구적 웨딩드레스에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 감각으로 응용한 차별화된 한국적 독창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V. 결 론

혼례의식에서 신부의상은 신부의 역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특유한 전통적 풍습과 관습, 그리고 민족성을 잘 나타내 준다.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그러한 민족적 전통성은 대중매체와 통신의 발달로 점차 서구화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다른 어떤 복식보다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 웨딩드레스에 있어 한국적인 독창성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미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같은 활용화를 위해 조선시대 여성 혼례복이었던 원삼, 활옷, 당의의 연구와 조형적 분석을 통해 선의 형태, 소재, 색상의 여러 가지 전통 요소를 활용하

참고문헌

- 1) 장수경(1998). 한국 전통문양의 이미지 형상화 소고. 한국의류학회지, 22(8), pp. 1001-1010.
- 2) 이소연(2006). 복은공주 활옷 문양을 응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 3) 이혜숙(2005). 웨딩잡지에 나타난 한복의 문양 및 모티프 분석. 복식문화연구, 13(6), pp. 1000.
- 4) 이남욱(2006). 전통혼례복을 응용한 한국적 웨딩드레스 개발.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현정(2007). 한국 전통매듭기법을 응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 6) 백현옥(2007). 한국의 전통문양을 응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연화문을 중심으로.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 7) 하승연(1998).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 전통 떡살문양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 8) 문화관광부(2000). 우리옷 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p. 93.
- 9) 조효순(1989).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서울: 일지사. p. 298.
- 10) 문화관광부(2000). 우리옷 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p. 100.
- 11) 권순교(2006). 전통복식의 현대적 활용화를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국민대 디자인대학원. p. 9.
- 12) 강혜영(1993). 전통혼례복을 활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2.
- 13) 박옥련(2000). 한국전통복식문양사. 서울: 형설출판사. p. 50.
- 14) 허 균(1999). 전통문양. 대원사.
- 15) 오근재(1985). 한국문양의 전개. 미진사.
- 16) 오근재(1985). 한국문양의 전개. 미진사.
- 17) 허 균(1999). 전통문양. 대원사.
- 18) 오근재(1985). 한국문양의 전개. 미진사.
- 19) 허 균(1999). 전통문양. 대원사.